

“삼성·SSG 잡아야 진짜 강팀이다”

KIA, 주중 6연전 '실책전·1위 굳히기'

이의리 공백, 막강 화력으로 보강 전력 누수 '실책 1위' 불명예 탈출 2위 NC와 승차별리고 독주 준비



올 시즌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프로야구 KIA 타 이거즈가 이번 주 선두권을 노리는 팀들과 맞붙는다.

6일 현재 2위 NC에 1게임차 앞선 선두 KIA는 7일부터 3위 삼성과 대구에서 주중 3연전을 갖고, 10일부터는 4위 SSG와 홈에서 주말 3연전을 치른다.

올 시즌 상대 전적에서 밀리는 팀은 SSG와 삼성(이상 1승2패) 두 팀뿐이다.

KIA는 두 팀을 상대로 실책과 동시에 위태로운 1위 자리를 굳게 지킨다는 복안이다.

먼저 삼성과의 주중 3연전을 위해 대구 원정길에 오른다. 첫 경기 양팀의 선발투수는 KIA는 양현종, 삼성은 이승현이다.

4월초까지만 해도 삼성은 8위에 머물러 있었지만, 중순부터 2주 연속 5승1패의 호조로 순위가 급상승해 3위까지 올라섰다.

특히 선취점을 뽑고 마운드의 힘으로 승리를 지켜 올 시즌 '선취 특점한 14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는 진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데이비드 맥키넨(타율 0.387)과 구자욱(타율 0.328)이 이끄는 팀 타선이 탄탄하고, 지난해에는 롯데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팀 타율(0.306)을 기록했다.

마운드에선 원태인이 다승 공동 1위에 올라 있고, 삼성이 자랑하는 '베테랑 불펜 트리오' 임창민, 김재운, 오승환이 뒷문을 단단히 지키고 있다.

KIA는 한 달전 홈에서 치른 삼성과의 시즌 첫 3연전에서 불펜이 승부처에서 고전하면서 아쉽게 1승2패를 기록한 바 있다. 이번 3연전도 치열한 불펜 싸움이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

이어 오는 10일부터는 SSG를 홈으로 불러들



막강 화력으로 KIA 독주를 견인하고 있는 최형우, 소크라테스, 김도영(왼쪽부터)

(KIA 타이거즈 제공)

여 주말 3연전을 치른다.

4위 SSG는 상위권 경쟁 중에 있지만, 올 시즌 10개 구단 중 선발진이 가장 취약하다.

선발투수 평균자책점(6.88)이 리그 최하위로 올 시즌 팀 퀄리티스타트는 현재까지 총 7번으로 리그 꼴찌다. 1위 NC(15번)와는 2배 차이다.

외국인 투수 더거는 올 시즌 1호로 방출됐고, 최근 2경기에서 베테랑 좌완 김광현, 로에니스 엘리아스도 차례로 무너져 패전을 떠안았다.

타선에선 최정과 홈런 부문 공동 1위로 달리고 있는 한유성이 부상으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면서 타선의 무게감도 줄었다. 팀 타율(0.274)도 10개 구단 중 6위에 머물러 있다.

결국, KIA는 경기 초반부터 상대 선발투수를 잘 공략한다면 승부의 추를 가져올 수 있다. KIA의 올 시즌 최대 무기는 공격력이다.

팀타율(0.299) 1위를 비롯해 홈런(41개) 1위, 타점(203개) 1위 등 각종 공격 지표가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다만, 4선발 이의리의 부상 공백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지난 3일 한화와의 경기를 포함해 이의리의 대체 선발투수가 등판한 4경기에서 KIA는 모두 졌다.

프로야구 팀별 순위 (6일 현재)

순위	팀명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KIA	23	12	0	0.657	0
2	NC	22	13	0	0.629	1
3	삼성	20	15	1	0.571	3
4	SSG	19	16	1	0.543	4
5	LG	18	17	2	0.541	5
6	두산	18	19	0	0.486	6
7	키움	15	19	0	0.441	7.5
8	kt	15	21	1	0.417	8.5
9	한화	14	21	0	0.400	9
10	롯데	11	22	1	0.333	11

또한, 수비에서의 실책도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KIA는 올 시즌 실책 1위다. 지난해 kt와의 마지막 3차전에서도 한 경기 최다인 5개의 실책을 쏟아내고 자멸했다.

연이은 실책과 투수 부상공백에 발목이 잡히며, KIA는 지난해 홈 5경기에서 2승3패를 기록, 2위 NC와 승차를 벌리는 데 실패했다.

1위 자리를 위협받고 있는 KIA가 삼성, SSG 전 실책과 함께 선두 굳히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주흥철기자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 전국 시도체육회장 협 부회장 선출

전갑수(사진) 광주시체육회 회장이 민선 2기 전국 시·도 체육회장 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전갑수 회장은 지난달 25일 '2024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기간 중 울산에서 개최된 '제1차 전국 시도체육회장 협의회'에서 전국 시·도 체육회장 협의회 부회장에 선출됐다.

전갑수 회장은 배구 경기인 출신으로 광주시배구협회 회장, 한국실업배구연맹 부회장, 대한경기협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이력과 현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 상임 부회장, 광주시 시장자문위원,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추진위원으로 대·내외적인 왕성한 활동과 경험을 인정받았다.

민선 2기 전국 시도체육회장 협의회는 민선 지방체육회의 발전과 대한민



국 체육문화 발전을 선도하고자 설립돼 시도별 현안을 공유하고 체육 정책 발굴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민선체육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방체육 정책 개선 및 체육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운영된다.

전갑수 회장은 "17개 시·도 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함께 소통하고 광주시체육회가 민선 2기 지방체육회의 모범적인 진흥을 선도해 한국 체육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지역 체육인들의 마음을 모아 평생 체육으로 시민들이 행복한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사진 왼쪽부터 김성훈(테코), 우정호(피더), 천지민(킬러), 최도연(킬러) (송원대 제공)

송원대 세팍타크로 더블 회장기 세팍타크로 2연패

우정호(피더)·김성훈(테코), U-21 테극마크 '점경사'

송원대 세팍타크로팀이 제35회 회장기 세팍타크로대회 더블에서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송원대는 지난 1일 경남 고성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대회 더블이벤트 결승에서 대구과학대를 2대0으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다.

레구에서는 준결승전에서 원광대에 1대2로 패하며 동메달에 그쳤다.

2022년 창단 이후 세팍타크로 강팀으로 자리매김한 송원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정호(피더)와 김성훈(테코)이 U-21 테극마크를 달며 학교 명예를 드높였다.

이와 함께 강릉고 광주시체육회 전

문지도자는 2년 연속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선임돼 대표팀을 이끈다.

U-21 세팍타크로 대표팀은 7-14일 충북 보은군에서 강화훈련을 실시한 후 21-29일 태극 나콘랏차시마에서 열리는 제5회 유소년 혼다 유니언 컵에 참가해 금메달에 도전한다.

김동재 송원대 부장 교수는 "광주시체육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우수 선수 유치와 선수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며 "송원대 대학혁신사업단의 팀 지원에도 감사드리며 앞으로 안정적인 선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희중기자

광주여대 오예진, 대학무대 "적수 없다"

종별선수권, 개인종합 대회 2관왕 명종 고등부 광주체고, 금2·은3·동4 획득 선전

광주여대 오예진(3년)이 제58회 전국 남·여 종별선수권 양궁대회 여자대학부에서 대회신기록 2개를 작성하며 2관왕을 차지했다.

여자양궁 국가대표 오예진은 지난 4일 충북 김수녕양궁장에서 열린 대회에서 개인종합 1천389점(대회신기록)으로, 2위 염혜정(경희대2·1천370점)을 큰 점수차 따돌리며 여대부 최강을 확인했다.

국가대표 순위평가전에서 4위를 기록하며 아쉽게 파리행 테극마크를 놓친 오예진은 앞서 열린 거리별 경기 70m에서 345점(대회신기록)으로 금메달, 50m와 30m에서 은메달을 추가하며 금메달 2개, 은메달 2개로 대회를 마감했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최민선(광주시청)이 50m에서 금메달, 김수린(광주

시청)이 30m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김수린은 개인종합에서 1천381점을 기록하며 전인아(전북도청·1천384점)에 이어 은메달을 추가했다.

고등부에서는 광주체고가 금2·은3·동4개를 수확하는 선전을 펼쳤다.

남지현(2년)이 여고부 30m 공동 1위(355점), 70m 2위(332점), 개인종합 2위(1천352점)를 차지했다.

이다영(3년)은 여고부 70m 1위(334점), 개인종합 3위(1천348점)를 기록했다.

광주체고는 이다영·남지현·이윤아(2년)·김성령(1년)이 팀을 이끈 여고부 단체전에서 3천997점을 기록, 은메달을 합작했다.

이어 심유한(1년)이 남고부 90m 3위(306점), 최우진(3년)이 30m 3위(354점), 박주혁(1년)이 30m 3위(354점)로



제58회 전국 남·여 종별선수권 양궁대회 여자대학부 개인전 우승을 차지한 오예진이 시상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혜정, 오예진, 정다이나 (광주시양궁협회 제공)

동메달을 차지했다. 중등부에 출전한 광주체고는 남자 60m에서 김종연(3년)이 343점으로 공동 1위, 여자 50m에서 강수정(2년)이 339점으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초등부 U-11 남자 20m에서는 삼성

초 광태우(4년)가 341점을 쏘 은메달을 따냈다.

성진초는 초등부 남자 단체전에서 4천80점을 기록하며 1위 창녕초(4천129점), 2위 인천 석암초(4천96점)에 이어 값진 동메달을 수확했다. /박희중기자

한국남자 400m 계주, 파리올림픽 출전 무산

패자부활전 조 4위

한국 육상 남자 400m 계주 대표팀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에 실패했다.

한국은 6일 바하마 나소에서 열린 20

24 세계계주선수권대회 남자 400m 계주 패자부활전 2조에서 김태호, 김국영, 이재성, 고승환(이상 광주시청) 순으로 달려 33초17로 8개 팀 중 4위를 했다.

패자부활전에서 1-3조, 상위 1-2위

에 오른 총 6개 팀은 파리 올림픽 티켓을 손에 넣었다.

1988년 서울 대회 이후 36년 만의 올림픽 본선 무대 진출을 꿈꿨던 한국은 0.6초의 격차를 넘지 못하고 분루를 삼켰다. /연합뉴스

이날 패자부활전 2조 예선에서는 가나가 38초29로 1위, 나이지리아가 38초57로 2위를 차지해 파리행 티켓을 손에 넣었다.

나이지리아와 한국의 격차는 0.6초였다.

한국은 39초16의 도미니카공화국에 0.01초 차로 밀려 4위에 머물렀다. /연합뉴스

Son, 빛바랜 EPL 통산 120호골

팀 4연패...사실상 챔스 좌절

손흥민이 EPL 통산 300번째 경기에서 120호 골을 신고했으나 소속팀 토트넘의 4연패를 막지는 못했다.

토트넘은 6일 열린 2023-2024 EPL 36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리버풀에 2-4로 졌다.

스트라이커 히사를리송이 후반 27분, 주장 손흥민이 후반 32분 차례로 득점포를 가동해 추격을 시작했으나 승부를 뒤집기에는 격차가 너무 컸다.

이번 골은 이날 경기를 통해 EPL 통산 300경기 출전을 달성한 손흥민의 120번째 득점이었다. 이전까지 토트넘 구단에서 'EPL 300경기'를 이룬 선수는 위고 요리스(LA FC)와 해리 케인(바이에른 뮌헨)뿐이었다.

올 시즌으로만 보면 시즌 17호 골(9 어시스트)이다.

손흥민이 뜻깊은 득점을 신고했지만 토트넘은 시즌 막판 4연패 수렁에



6일 열린 리버풀과의 원정경기에서 EPL 통산 120호골을 터뜨린 손흥민이 팀 패배로 아쉬워하자 골키퍼 콜리엘로 비카리오가 위로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빠져 다음 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진출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졌다. /연합뉴스